성주사, 100만 시민 인문학 세계 초대

6월 7일 불모산 인문학 강의에 열띤 호응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
200여 명 참여해 역사 청강
9월까지 매주 日 10시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는 6월 7일 '천년의 불모산 성주사100만 창원시민을 만나다' 인문학 강의를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창원 성주사가 불교 문화재를 설명하는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불교세계관을 제시하고 사찰문화 곳곳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6월 7일 '천년의 불모산 성주사 100만 창원시민을 만나다' 인문학 강의를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성주사 인문학 강의는 불교문화에 숨어 있는 역사와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채롭게 엮어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심도 깊은 강의로 마련됐다.

참가한 창원 시민들과 불자 200여 명은 강의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화답하며 귀를 기울였다.

첫 강의 현장에서는 주지 법안 스님이 성주사 창건 배경을 짚어보고 역사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역사 속 민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안식처가 된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성주사는 왜구의 침략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며 활동한 무염 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에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중창해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곰절로 유명한 설화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주사의 모습을 소개했다.

법안 스님은 "불모산에 곰이 살았는데 배가 고파 절에 내려 왔었다. 성주사 스님들이 좌선삼매에 들어 수행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고픔을 잊고 스님들처럼 수행을 했다. 그 후 곰은 다음 생애 사람으로 태어나 부목으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강의는 성주사의 창건부터 임진왜란 후 중창과 가야불교와의 관계성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성주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성주사에는 현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29호), 극락세계가 그려진 감로도(보물 제1732호), 몽산화상육도보설(보물 제1737호), 대웅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등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성주사 인문학 강의는 매월 첫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9월까지 이어진다.

7월은 유근자 동국대 교수가 '정토의 실현, 성주사 대웅전 삼세불상' 을 주제로 17세기 성주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 및 1729년 개금 · 중수 기록을 통한 관찰사 박문수와 성주사의 관계를 설명한다. 8월에는 정진희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조선의 풍속화로 들어가다, 성주사 감로도 염라대왕과의 대화' 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정 박사는 성주사 감로도가 조성된 18세기 풍속화와 감로도에 담긴 불교의 세계 및 조선후기 명부세계와 관련된 성주사 지장전 존상에 관한 내용을 풀어 갈 예정이다.

9월 강의는 김봉렬 문화재 위원장이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일상에서의 문학적 삶' 을 주제로 성주사에 조성된 국가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숨어 있는 문학적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성주사는 인문학 강의 기간에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 인문학 체험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내용은 문화유산 동영상 시청, 목판 인쇄 체험, 불교 문화상품 만들기, 성주사 지장전 답사 등이다.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복원 박차

3차년도 14매 복원사업 시작
2021년 2월까지 복원 예정


고창 선운사 스님들이 〈석씨원류〉 목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복원작업 중 3차년도 14매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석씨원류〉 중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 중 38매를 복원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14매를 2021년 2월까지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선운사 본 〈석씨원류〉는 1486년(성종 17)에 왕명으로 새긴 것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사명 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구해온 〈석씨원류〉 1질을 모본으로 하여 1648년(인조 26)에 최서용(崔瑞龍) · 해운법사(海運法師) 등에 의해 복간됐다. 목판에 '兜率山禪雲寺開版(도솔산선운사개판)' 이라는 간기가 있으며, 발문의 '崇禎後戊子五月日 兜率山人 玄益 跋(숭정후무자오월일 도솔산인 현익 발)' 내용을 통해서 선운사에서 복간된 목판임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원래 103매 409판이었으나 모두 망실되고 현재는 62매 124판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관 관리되고 있다. 각판의 앞뒷면에 모두 판각돼 있는데 하단에는 〈석씨원류〉 본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그 내용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판각의 크기는 가로 39cm, 세로 29.5cm이다. 이 〈석씨원류〉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 중 걸작으로 꼽히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다.

정식명칭이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原流應化事蹟)〉인 〈석씨원류〉는 중국 명(明)나라의 보성(寶性)이 석가의 행적과 불법의 계승에 관해 서술한 〈석가여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과 불교가 중국에 수용된 이후 원(元)에 이르기까지 불교사를 정리한 속편을 엮어 간행한 것이다. 총 상하 4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권(1~2권)은 석가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을, 하권(3~4권)은 석가 이후 달마를 비롯한 고승들의 일화를 삽화와 함께 수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씨원류〉 목판은 선운사 본(禪雲寺本)과 불암사 본(佛庵寺本) 두 가지 판본이 전하고 있다. 불암사와 선운사에서 간행된 〈석씨원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편찬체제는 전혀 다르다. 불암사 본은 앞쪽에 그림을 싣고 뒤쪽에 본문을 둔 전도후문(前圖後文) 형식이며, 선운사 본은 상단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 상도하문(上圖下文)형식이다. 두 판본 모두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판본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중요한 문화재이다. 불암사 목판은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59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기로운문화동행, 동명대 기금 후원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6월 10일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 동명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6월 10일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총 1000만원이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청량사 주지), 청량사 자오 스님, 정홍섭 총장, 정원기 향기로운문화동행 후원회장, 이교탁 신도회장, 박남규 동명대 교육혁신본부 부총장, 박병준 사무처장, 장재진 학생처장이 참석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학교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안사, 광주 북구 희망김밥 전달


광주 북구지역 아이이들에게 희망김밥이 전달됐다. 광주 정안사(주지 동초)는 6월 11일 (사)자비신행회에서 북구지역 아동센터 55곳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힘내라 우리 아이들!, 정안사에서 보내는 희망김밥' 이란 주제로 마련한 김밥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1,000명분 '희망김밥' 에는 김밥 2줄과 음료수, 바나나, 귤, 음료수 등이 포함됐다.

동초 스님은 "등교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감염에 대한 우려속에 생활하고 있어 '힘내라' 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달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법륜 스님 초청 화엄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정토회 법륜 스님을 초청해 화엄법회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즉문즉설 화엄법회' 제목으로, 6월 10일 화엄원에서 개최된 법회에서 법륜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해탈의 세계에 가는 것이며, 해탈은 모든 고통이 해결된 상태를 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의해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회에는 법륜 스님,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을 비롯한 학인스님과 신도들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을 통해 '코로나19, 출가, 6.10민주화운동' 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대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불청 부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 모집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사찰문화 해설사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7월~10월 2,4째주 수요일 오후 7시 서면 영광문화원 3층에서 진행된다.

양성 과정은 △사찰해설의 방법론적 이해(7월 8일) △불교 사상과 사찰문화 이해 (7월 22일) △불교 석조 문화재 이해 (8월 12일) △ 불교 회화 문화재 이해 (8월 26일) △ 사찰답사 (9월 5일) △ 사찰 구조물의 이해 (9월 9일) △사찰답사 (9월 20일) △전각과 본존불의 이해 (9월 23일) △목조 건축물의 이해 (10월 14일) △사찰답사 (10월 18일)이다. 양성과정은 현장실습 및 템플스테이로 마무리된다. 현장실습과 템플스테이는 1박 2일로 진행되며 일정은 10월 31일~11월 1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